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구역회가 오늘 오후 2시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구역회 이후 인사구역회가 열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천안에 있는 디아코니아 자매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나와 남을, 남과 남을 비교하는 일을 줄이십시오. 나 자신의 인간다움과 하나님 자녀다움에 더욱 신경 쓰며 사십시오.

사 62:1~5 / 시 36:5~10 고전 12:1~11 / 요 2:1~11

시 13:1-6

오늘 식당 봉사 : 정경례 강순배 신영신 김미현 김진선 김연실 김명순 김재환
 다음 주 식당봉사 : 김윤정 조병주 김현영 최은미 박시내 이영아 백묘현 윤성중
 오늘설거지봉사 : 이국노 김민화 박시내 최은미 조향미
 다음주설거지봉사 : 황현성 이종배 고정립 김용훈 김기성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삶이 가져다주는 문제들로 쉽게 짓눌리고, 여러 부대낌 속에서 쉬이 좁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드넓은 겨울 들판처럼 넓고 시원한 가슴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자연스러우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냉랭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스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들,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이라도 더하기 위해 이리저리 마음 쓰는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꺼지지 않는 온기와 빛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순배	고숙이	구명자	김기석	김희우	김남종	오복순	김명순	김문주
김성우	김성한	조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김일랑	이은옥
김재환	김진선	김종문	지명주	김종술	박미란	김종철	고영애	김주영
김준우	김준호	곽혜자	김지윤	김철수	유영남	김필순	김훈동	김희진
박홍재	류건형	이주은	문금석	문복순	문홍일	박병구	박석희	조항미
박숙영	박시내	박영희	박옥순	박옥식	박유경	박인혁	박창운	허정윤
방극숙	방문성	박혜경	배근수	김금순	배삼순	백묘현	변재민	이소혜
서수진	송영철	신진식	변혜정	안길상	이형숙	안세희	양상철	박재란
유경순	윤미경	윤석철	장혜숙	윤수진	윤여민	임보람	윤정덕	구성실
윤주원	최윤선	이광섭	이나단	이우원	옥귀희	이윤석	박안수	이인웅
오송경	이정은	이주영	오재영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임영	정경례
임주빈	최현옥	장아름	전영자	정두리	정완수	김재광	정종삼	정현선
조병주	조병무	송양진	조순덕	주경진	이윤정	진은혜	차혜심	최숙화
김정길	최종원	최철수	곽권희	하현철	최성애	한기택	한성건	한완식
임정자	한창희	허성호	허준호	허호범	박성실	홍복선	홍선희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황지현	무명2					

감사헌금:

김대규	박경미	김서준	김종철	고영애	박미희	박병구	송임희	신진식
변혜정	유청빈	이은자	무명4					

녹색꿈헌금:

김종락	박영신	안준용	이진희	이진환	이범춘	이정우	장윤지	최희영
홍순구	무명							

생일감사헌금:

이미혜

마음으로 읽는 글

한 수 위

어이, 할매 살라면 사고 안 살라면 자꼬 만지지 마씨요
 —때깁은 준다 기지가 영 허술해 보잉만
 먼 소리다요 요 웃도리가 작년에 유행하던 기진디 우리/ 여췌네도
 요거 입고 서울 딸네도 가고 마을 회관에도 가고
 병원에도 가고 올여름 한려수도 관광도 땡겨왔소
 물도 안 빠지고 늘어나도 앓고
 요거 보씨요 백화점에 납품허던 상푼디
 요즘 쟁기가 안 좋아 이월상품이라고 여그 나왔다요
 행편이 안 되면 깎아달란 말이나 허제
 안죽 해장 마수걸이도 못했는디
 녀 장사판에 기지가 좋네 안 좋네 어찌네
 구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허들 말고/ 어서 가씨요
 —뭇 내가 돈이 없어 그러간디 나도 돈 있어라
 요까이껏이 허면 얼마나 험다고 괘시는 괘시오
 팔쳐년인디 산다면 내 육쳐년에 주지라 할매 차비는/ 빼드리께
 뿌시력거리며 괴춤에서 돈을 꺼내 할매 퍼보이는 돈이
 천원짜리 구지페 닉 장이다
 —애개개 어쩐다요
 땡소 고거라도 주고 가씨오 마수걸이라 밀지고 준 줄이나/ 아이씨요잉
 못 이긴 척 배시시 웃는 할배와/ 또 수줍게 웃고 돌아서는 할매
 둘 다 어금니가 하나도 없다

복효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을 마음 문 활짝 열고 맞아들이십시오. 그 빛으로 우리의 내면과 사회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십시오. 그 빛 안에 거하는 자, 은혜와 진리를 맛볼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두움을 타할 뿐 내면의 어둠을 살피지 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먼저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빛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을 밝히겠습니다. 나아가 그 빛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구역회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광권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방문성 장로	권미정 집사 박시내 집사

1월	영접위원	김인걸 김중수 이근식 홍복선 신영신 오자영
	헌금위원	방문성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조용한 위기

2006년 겨울, 또 하나의 미국 최고 명문 대학(Y라 불러보자)이 중요 기념일에 맞추어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심포지엄의 핵심이었던 것은 줄곧 ‘교양 교육의 미래’에 관한 토론이었다. 이 행사가 개최되기 몇 개월 전의 일이다. 심포지엄에 참가하기로 한 발언 예정자들은, 토론의 중심 주제가 변경되었으니, 이번에는 그저 와서 어떤 주제든 원하는 주제에 관해 소규모 청중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 된다는 통보를 받는다. 수다를 참 못지게도 떨어대는 한 젊은 행정관은 내게, 그 변경 사유가 Y대학 학장님의 결정 때문이라고 귀띔해주었다. 그 학장은 교양 교육에 관한 심포지엄은 “뉴스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게 뻔하니, 그 주제를 ‘테크놀로지의 최근 결실’, ‘테크놀로지가 경제와 산업의 이윤 창출에 갖는 소임’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넘쳐나며, 새로운 이야기들은 나날이 우리 삶의 마당에 도착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인도에서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이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 말이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기쁘게 하며, 안락하게 하는 소유물들을 그리고 타고르가 물질적 외피라고 불렀던 것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생각이 영혼으로부터 열려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풍요롭고 미묘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생각이 사람을 세계에 연결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한 사람을, 단지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되는 도구나 그렇지 않은 방해물로서가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이다. 영혼을 지닌 이로서, 자신과 똑같이 깊고 복잡한 존재자로서 여겨지는 다른 어떤 이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이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많은 이들에게 종교적 함의를 지닌다. 그런데 나는 이 종교적 함의를 고집스레 주장하지도, 또 거부하지도 않으려 한다. 혹

자는 이러한 함의를 이 단어에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다. 내 주장의 요지는, 타고르와 올컷 두 사람 모두 이 ‘영혼’이라는 말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며, 우리의 관계를 단순한 사용과 조작의 관계가 아니라 풍요로운 인간 간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사고·상상능력.’ 우리가 사회에서 서로 만날 때, 만일 우리가 자아와 타자를 그러한 식으로, 서로에게서 사고와 감정의 내적 능력을 상상하고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필경 실패하고 말 것이다. 민주주의란 존경과 관심에 기초해서 세워지는 것이며, 존경과 관심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단순히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로서 인식할 줄 아는 능력에 기초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들이 이토록 열렬히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위기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교육의 방향 그리고 세계 민주 사회 체제들의 방향에 관해서는 거의 어떠한 질문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시장 속에서의 이익 창출 가능성을 향해 질주하는 쇄도와 함께, 민주주의 체제에 더 없이 소중한 가치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말 위기에 처해 있다.

이윤 동기는 많은 관련 지도자에게,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그들 국가의 미래 건강에 핵심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속삭인다. 우리는 훌륭한 과학·기술 교육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나는 국가들이 이 분야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관심사는, 그와 똑같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띠는 다른 능력들이 지금 경쟁적 혼돈 속에서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한 능력들은 대내적으로는 그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의 건강에도, 세계의 가장 다급한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춘 어떤 훌륭한 세계 문화의 창조에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능력들이다.

이러한 능력들은 인문교양과 예술에 관련되어 있다.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지역적 차원의 열정을 뛰어넘어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곤경에 공감하는 태도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